

제14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유권자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선거연구회에서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학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조금만 내셔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밝히신 견해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2년 12월

한국선거연구회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선거연구회 (전화) 02 - 566-5521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남영 교수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중빈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웅진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박찬욱 교수



맞고 틀리는 답은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1. 매우 많았다 2. 조금 있었다
 3. 별로 없었다 4. 전혀 없었다

2. 선거기간 중에 누구를 찍을 지 주위 사람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1. 매우 자주 했다 2. 자주 했다
 3. 가끔 했다 4. 별로 하지 않았다
 5. 전혀 하지 않았다

3. 후보자들의 다음과 같은 선거운동을 접해 보았습니까?

- 3-1. 유세장연설 1. 가 보았다 2. 가지 않았다
3-2. TV 연설 1. 보았다 2. 보지 않았다
3-3. TV 광고 1. 보았다 2. 보지 않았다

4.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원들이 선생님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5. 후보자들을 아는 데 다음의 어느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2개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1. 현수막 2. 선거벽보
 3. 후보자 홍보인쇄물 4. 유세장 연설
 5. 텔레비전(TV) 6. 라디오
 7. 신문 8. 정견·정책집
 9. 다른 사람과의 대화

6. 이번 선거에서 투표하십니까?

1. 투표했다
 2. 기권했다 —▶ [문13으로 가세요]

7.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었습니까?

1. 김영삼 2. 김대중 3. 정주영
 4. 이종찬 5. 박찬종 6. 이병호
 7. 김옥선 8. 백기완



8. 선생님께서 투표하실 때

- 1. 찍을 만한 후보자가 있어서 찍었다
- 2.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었지만 그래도 찍었다

9. 누구를 찍을지 언제 결정하셨습니까?

- 1. 투표당일 2. 1-3일전 3. 4일-1주전
- 4. 1-2주전 5. 2주-한 달전 6. 한 달 이상 전에

10. 무엇을 보고 찍으셨습니까?

- 1. 후보자의 정당을 보고
- 2. 공약이나 정견을 보고
- 3. 인물을 보고
- 4. 주위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 5. 별 생각 없이

11. 투표 결정할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2개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1. 가족 2. 친구 3. 동네 사람들
- 4. 직장 사람들 5. 유세장의 후보자 연설 6. 텔레비존
- 7. 라디오 8. 신문 9. 각종 선거 홍보물

12. 투표를 결정하실 때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문제는?
아래 중 2개만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 01. 물가문제 02. 부정·부패 척결 03. 정권교체
- 04. 정국안정 05. 경제회복 (경제성장) 06. 지역화합
- 07. 주택문제 08. 농촌문제 09. 부동산투기
- 10. 빈부격차 11. 양김씨 청산 12. 내각제개헌
- 13. 국가안보 14. 기타 (_____)

13. [기권하신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왜 기권하셨습니까?

- 1. 찍을 만한 후보자가 없어서
- 2. 투표를 하든 안하든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 3. 정치나 선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 4. 누가 당선되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 5. 개인사정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찍으셨든지 또는 기권하셨든지 평소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14. 지난 87년 대통령선거 때 선생님은 어느 후보자를 찍었습니까?

1. 노태우 2. 김영삼 3. 김대중 4. 김종필
 5. 기타 후보 6. 기권했다 7. 투표권이 없었다

15. 지난 봄(92년) 국회의원선거 때 선생님은 어느 당 후보자를 찍었습니까?

1. 민자당 2. 민주당 3. 국민당
 4. 신정당 5. 민중당 6. 공민당
 7. 무소속 8. 기권했다 9. 투표권이 없었다

16.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정견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많이 있었다 2. 어느 정도 있었다
 3. 별로 차이가 없었다 4. 전혀 차이가 없었다

17. 선생님께서 다음의 후보들을 좋아하는 정도는? (해당번호에 "o" 표 해주십시오)

	좋아 한다	좋아하는 편이다	싫어하는 편이다	싫어 한다	모르 겠다
1. 김영삼	1	2	3	4	5
2. 김대중	1	2	3	4	5
3. 정주영	1	2	3	4	5
4. 이종찬	1	2	3	4	5
5. 박찬중	1	2	3	4	5
6. 이병호	1	2	3	4	5
7. 김옥선	1	2	3	4	5
8. 백기완	1	2	3	4	5

18. 아래의 사람들 중 누가 도덕적으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김영삼 2. 김대중
 3. 정주영 4. 잘 모르겠다

19. 아래의 사람들 중 누구의 성품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김영삼 2. 김대중
 3. 정주영 4. 잘 모르겠다

20. 아래의 사람들 중 누가 가장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김영삼 2. 김대중
 3. 정주영 4. 잘 모르겠다

21.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지난 1-2년간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이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많이 나빠졌다
22. 민정·민주·공화 3당이 민자당으로 통합 (3당 통합)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했다 2. 잘한 편이다
 3. 잘 못한 편이다 4. 아주 잘 못 했다
 5. 모르겠다
23. 선생님께서 가장 가깝게 느끼시는 정당은?
1. 민자당 2. 민주당 3. 국민당
 4. 신정당 5. 기타 () 6. 없다
24. 현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잘 하는 편이다
 3. 못하는 편이다 4. 매우 못 한다
25. 선생님은 아래와 같은 생각에 얼마나 동감하십니까?
“나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정부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못 된다”
1. 전적으로 동감한다 2. 어느 정도 동감한다
 3. 동감할 수 없다 4. 절대 동감할 수 없다
26. 선생님은 투표하시기 전에 이번 선거결과를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1. 압도적으로 당선되리라 생각했다
 2. 아주 적은 차이로 당선되리라 생각했다
 3.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예측할 수 없었다.
27.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하고 있다 2. 잘 하는 편이다
 3. 못하는 편이다 4. 매우 못 한다
28.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민주적이다 2. 대체로 민주적이다
 3. 대체로 비민주적이다 4. 매우 비민주적이다

29. 선생님댁 집안 경제사정은 지난 1-2년간 어떠했습니까?
1. 많이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많이 나빠졌다
30. “빈곤(가난)은 나라(국가)도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말에
1. 전적으로 동감한다
 2. 대체로 동감한다
 3. 동감할 수 없다
 4. 절대로 동감할 수 없다
31. 다음 중 어떤 제도가 우리나라 정치에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 대통령중심제 2. 어떤 제도건 상관없다
 3. 내각책임제 4. 잘 모르겠다
32. 농가부채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직접 탕감 2. 농촌에 더 투자해서 농가소득 증대
 3. 현재 정책 유지 4. 잘 모르겠다
33. 주택문제(아파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1. 큰 평수, 작은 평수에 상관없이싼 값에 공급한다
 2. 작은 평수 위주로싼 값에 공급한다
 3. 현재의 주택정책 유지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34. 남북통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이 북한을 흡수
 2. 남북한이 서로 인정하며 남한 주도로 통일
 3. 남한·북한의 좋은 점을 따서 통일
35. 선생님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여(與)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야(野)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여(與) 2. 여(與)에 기우는 편이다
 3. 중도 4. 야(野)에 기우는 편이다
 5. 야(野)
36. 이번 대통령 선거가 지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어느 정도 공명하게 치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공명했다 2. 대체로 공명했다
 3. 별로 공명하지 못 했다 4. 전혀 공명하지 못 했다

37. [공명했다 라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공명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자제했기 때문에
 - 2. 유권자들의 공명선거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 3. 관권개입이 줄었기 때문에
 - 4. 매스컴의 공정한 보도 때문에
 - 5.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 및 적극적인 감시활동 때문에
 - 6. 사직당국의 공정한 단속·처리 때문에
 - 7. 시민, 사회단체의 감시활동 강화 때문에
38. [공명하지 못했다라고 응답하신 경우에만 답하십시오]
 이번 선거가 공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상호비방·흑색선전
 - 2. 금권선거(금품·향응·관공 제공)
 - 3. 시민의식결여 (유권자들이 금품, 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4. 관권선거 (공직자의 선거개입)
 - 5.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 6. 선거관리의 불공정성
 - 7. 사직당국(검찰·경찰)의 선거사범에 대한 소극적·편파적인 단속
 - 8. 공약남발
 - 9. 기타(_____)
39. 투표하실 때, 후보자가 얼마나 공명하게 선거운동을 했는지 고려했습니까?
- 1. 많이 고려했다 2. 어느 정도 고려했다
 - 3.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4.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40. 유권자의 올바른 선거의식을 정착시키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홍보
 - 2. 학교교육을 통한 계몽
 - 3. 신문·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계몽
 - 4. 범 시민운동의 전개
41. 이번 선거기간에 다음과 같은 일을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말씀하여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o” 표를 해주십시오)
- | | 있 | 없 |
|--|---|---|
| 1. 금전을 받은 일 | 1 | 2 |
| 2. 물품을 받은 일 | 1 | 2 |
| 3. 음식을 접대받은 일 | 1 | 2 |
| 4. 관광을 간 일 | 1 | 2 |
| 5. 취직이나 이권 등의 약속을 받은 일 | 1 | 2 |
| 6. 공직자(통·반장 등)로부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받은 일 | 1 | 2 |
| 7. 직장상사로부터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받은 일 | 1 | 2 |

42. [후보자의 지지와 관련하여 금품, 음식접대 등을 받았다면]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1. 생활에 보탬이 되기 때문에
- 2. 지지하는 후보자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 3. 선거때면 흔히 있는 일인 줄 알고서
- 4.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요구해서
- 5. 내용도 모르고 무심코
- 6.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 7. 주위사람의 권유로

43. [금품이나 음식접대를 받은 경우]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 1. 주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다
- 2. 투표하는데 영향이 없었다
- 3. 불쾌해서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했다
- 4. 투표할 마음이 나지 않아서 기권하였다

44. 공명선거를 위해 다음 중 어느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정당,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의 준법정신
- 2. 유권자들의 부정한 후보자에 대한 배격
- 3. 사직당국의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 4. 선거관리위원회의 보다 활발한 감시 및 지도활동
- 5. 언론 및 사회단체의 철저한 감시활동 및 여론조성

45. 이번 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번호에 “o” 표를 해주십시오)

- | | 있 | 다 | 없 | 다 |
|--------------|---|---|---|---|
| 1. TV | 1 | | 2 | |
| 2. 라디오 | 1 | | 2 | |
| 3. 신문 | 1 | | 2 | |
| 4. 잡지 | 1 | | 2 | |
| 5. 포스터 | 1 | | 2 | |
| 6. 홍보책자(팸플렛) | 1 | | 2 | |
| 7. 본 적이 없다. | (| |) | |

46.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캠페인이 공명성을 높히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은 효과가 있었다
- 2.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 3. 별로 효과가 없었다
- 4. 전혀 효과가 없었다

47. 선거에 관한 언론의 보도와 논평이 얼마나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공정했다
- 2. 대체로 공정했다
- 3.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
- 4.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48.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독립기관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얼마나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공정했다 2. 대체로 공정했다
 3. 별로 공정하지 못했다 4. 전혀 공정하지 못했다

49. 이번 선거중립내각이 얼마나 중립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지켰다 2. 대체로 잘 지켰다
 3. 별로 잘 지키지 못했다 4. 전혀 잘 지키지 못했다

50. 이제 선거는 끝나고 당선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선거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절대로 승복한다 2. 불만족스럽지만 승복한다
 3. 승복하기 힘들다 4. 승복할 수 없다

51. 선생님의 교육정도는?

1. 국민학교 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 이상

52. 선생님의 생활정도는?

1. 아주 잘 산다 2. 잘 사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못 사는 편이다
 5. 아주 어렵다

53. 선생님택의 전체 수입은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 40만원 미만 2. 40-59만원
 3. 60-79만원 4. 80-99만원
 5. 100-129만원 6. 130-159만원
 7. 160-189만원 8. 190-219만원
 9. 220만원 이상

54. 선생님의 출신 지역은?

01. 서울 02. 경기도 03. 강원도
04. 충청남도 05. 충청북도 06. 전라남도
07. 전라북도 08. 경상남도 09. 경상북도
10. 제주도 11. 이북 5도

55. 선생님의 종교는?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4. 유교
 5. 천도교 6. 원불교
 7. 없음 8. 기타 ()

56. 선생님의 연세는? (만 세)

※ 면접원 기재 사항

1. 조사지역의 규모	
<input type="checkbox"/>	1. 대도시(특별시, 직할시)
<input type="checkbox"/>	2. 중소도시
<input type="checkbox"/>	3. 군지역
2. 조사대상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3. 조사대상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1. 지정조사대상자(등재번호 번)
<input type="checkbox"/>	2. 대체조사대상자(등재번호 번)

면접원 이름:	연락처:					
면접일시:	월	일	시	분에서	시	분까지
면접지역:	시/도 면/리		구/시/군		동/읍	